



충청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문화동) / 전화 (043)220-5123/ (월간)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 제271회 임시회 회기중인 6월 24일 증평군 증평초등학교와 진천군 상산초등학교 5~6학년 70여명이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하여 의정자료관 등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직접 진행하며 의정활동을 체험하였다.

제271회 임시회

충청북도의회는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제271회 임시회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담관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기타 현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제272회 임시회 회기 운영 변경계획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 운영위원장 선임방법 개선, 전체의원 연찬회, 제4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제3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6월 20일부터 6일간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관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조직개편안 검토 및 심사방향에 대한 간담회와 주민참여제도, 결산감사기법 요령, 지방의회운영관련 법규집 등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제3회 충청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관 및 도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다.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내

- 회 기 : 2008. 7. 7(월). ~ 7. 8(화). (2일간)
- 의사일정

일시	부의안건
7. 7. (14:00)	● 제1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 선거(후반기) 2. 제2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08. 7. 7. ~ 7. 8(2일간) 3. 기타 안건처리
16:00	▶ 개회식
7. 8. (11:00)	● 제2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5. 기타 안건처리

272회·273회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계획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제273회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 주요현안 처리
행정소방위원회	●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8대 후반기 행정소방위원회 의정목표 설정 간담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간담회	
건설문화위원회	●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후반기 업무보고 및 현지 확인	

개 회 사

장마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해야...



이 기 동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무더위와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중순입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별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5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활동과 당면한 영농지원 등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소년체전과 충북교육의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뜻을 되새기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8대 의회 전반기가 이번 회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경제특별도의 초석을 다지는데 우리 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맡은바 소임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후반기에는 더욱 성숙된 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피해와 각종 전염병 발생이 우려됩니다.

각종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하절기 전염병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제유가와 물가인상 등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로써 지난 2년간을 되돌아보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새롭게 설계해보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비료값 안정대책 조속한 마련 촉구

이 언 구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비료 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 농민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지난 1월 24% 오른 데 이어 6월 19일 62.9%가 또 인상되어 올해만 86.9%가 올랐으며 연말이 되면 약 300%가 인상된 3만6,2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농협의 예측도 있다.

이제는 농민들이 더 이상 비료를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식량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짙어지고 있다.

이처럼 긴박한 시기에 시급히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지난 2005년 폐지된 '차손보전제도'를 시급히 부활시켜 줄 것을 농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차손보전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가격 인상 차액을 비료공장에 보전해 주어 해택을 볼 수 있었으나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농민들은 비료 값 부담에 큰 고통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에서 비료차손보전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우리나라 비료 사용량은 OECD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고 표준소비량도 30%이상 과다 소비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도 화학비료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이와 함께 퇴비 생산시설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

친환경 농업이 중시되고 있는 이때 퇴비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 비료와 병행 시비할 경우 토양의 산성화도 막고 친환경 농산물도 생산할 수 있다.

다시한번 도내 23만 우리 농민들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기에, 다시 살아야 하겠기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료 값 안정대책에 대한 조속한 마련을 간절히 호소한다.

전체의원 · 의정모니터 연찬회



▲ 6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체의원 및 사무처 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의원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다.



▲ 6월 9일 충청스파텔에서 의정모니터와 사무처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과 모니터원 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271회 임시회 회기 중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8대 후반기 의석배정 협의의 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식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제272회 임시회(2008. 7. 7. ~ 7. 8.)에서는 7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제272회 임시회 회기 결정,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 4시에 개회식을 갖는 것으로 하였으며 7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2일간의 임시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8대 후반기 의석배정 협의의 건은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전반기 의석배정인 지역선거구(청주 ~ 단양) 의원 의석, 비례대표의원 의석, 의장 의석 순의 역순으로 하여 맨 앞쪽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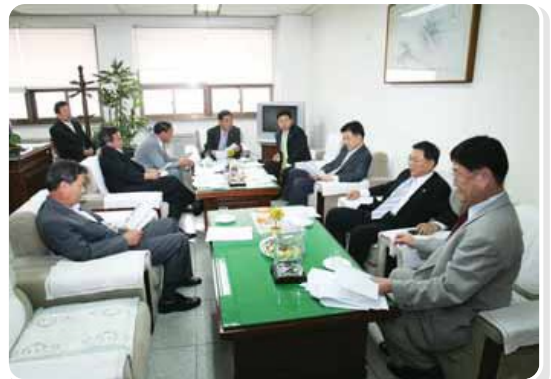
측부터 비례대표 의원 의석, 지역선거구(단양 ~ 청주) 의원 의석, 의장의 석 순으로 배정하기로 하였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은섭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청북도 기구개편에 따른 충청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내용에 맞도록 소관 부서와 위원회와의 연계성, 상임위원회별 기능 및 업무량의 형평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폐지되는 부서를 삭제하고, 소관부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소방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당초 개정안대로 균형발전국(균형발전본부)은 건설문화위원회로 소방본부는 행정소방위원회로 각각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식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건은 현재의 무기명 투표의 기명식 투표방식에서 기표식 투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다.

간담회

6월 25일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현안심사

6월 25일 제1차 회의에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행정소방위원회

- 도내 미분양 주택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의원발의『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심사 등



▲ 조례안 심사 6월 23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질의·토론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08년 7월 1일 위원회 조례 공포에 의거 행정소방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8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 열린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

례안 심사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6월 23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조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발의의 조례안으로, 핵심 내용은 2008년 6월 11일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을 2009

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영재 의원은 '현재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어 가뜰이나 어려운 건설경기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인해 한달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도내 건설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정부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서둘러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대국대과제(大局大課制)를 도입하여 한시기구인 생명산업본부를 폐지하고 9개 실·국·본부로 조직을 축소하면서 일부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직개편이 도 조직전반에 대한 변화임을 고려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의원 및 공무원들의 고견을 수렴하

고, 이를 종합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대국대과제(大局大課制)에 따라 과(課) 체제로 전환하면서도 경제통상국에 2개팀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직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팀제를 폐지하고, 부서 명칭 변경내용 중 변경한 명칭이 부서의 기능이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에게 익숙하지 않아 명칭 변경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마늘연구소'와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의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 가결하였다.

그밖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정원의 총수를 2,685명에서 17명을 감원한 2,668명으로 정원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는 새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조정을 권고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한 점과 총액인건비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급변 조직개편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조직의 활력을 위하여 승진직책 해소 등 종합적인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도지사에게 권고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충북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 간담회

6월 19일 의사일정 및 현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 조례안 심사

6월 23일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장주식)는 제271회 임시회기 중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주민소환 및 감사청구와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심의할 결산심사 기법에 대한 직무연찬을 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회구현에 주안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쳤다.

5월 23일 열린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심흥섭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는데, 동 조례안은 자연학습원 이용과 관련한 시설사용료 및 연수생 수련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시설사용관련 서식을 조례에 명시하고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또한, 주민의 참여와 감시 등

참정권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결산심사 기법에 대해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향상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주력했다. 주민소환제와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한 직무연찬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의 확대되어 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제도의 존재가치가 제고되는 만큼 도민들에게 폭넓은 도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기틀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결산심사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지방의회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고 지방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향후 예산안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열성적인 태도로 직무연찬에 임했다.



산업경제위원회

내수면연구소 등 도정 주요사업 현장 방문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운숙)는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과 간담회개최 및 내수면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대한 도정사업 현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6월 19일에는 농업기술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른 농업기술원 소관 마늘연구소에 대한 명칭변경 등 현안업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6월 23일에는 내수면 수산자원 이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축방역실태 등의 현장근무 직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내수면연구소와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를 방문하였다. 이날 산업경제위원들은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 내수면연구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민물고기 전시관을 운영하여

연간 2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도정 홍보 및 살아 있는 토종어류 전시로 민물고기 생태체험의 산 교육장을 마련한 것과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물고기병원인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등 앞서가는 연구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격려하였다.

또한,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를 방문하고 직원들이 인수공통전염병 검진확대 및 발생을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가축질병조사, 축산물 검사와 재난성 가축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광우병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특히 AI관련하여 오리 일제검사와 서한문 발송 등으로 AI청정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 것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축산위생연구소의 현장근무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간담회

6월 19일 농업기술원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고 있다.



▶ 현지방문

내수면연구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



제3회 충북어르신체육대회 참관 및 충북예총 간담회 등 실시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은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회 충북어르신체육대회 참관, 충북예총과의 간담회 등 알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체육분야에서는 지난 20일 실시한 제3회 충청북도 어르신체육대회를 방문 경기에 참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성적보다는 건강을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기를 당부하였고, 충북예총과의 간담회에서는 문화 선진도를 위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으며, 각 이익단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모두가 동참하는 예술단을 만들어 도민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예술단이 창단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주고 받았고, 예총에서는 아직 시·군 예총이 없는 보은, 단양, 진천군에 대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길 건의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군 단위에서도 더 많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당부 하였다.

간담회 ▶

6월 19일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현지확인

6월 23일 충북예총을 방문하여 운영 및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간담회 ▶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 채택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환)는 제271회 임시회 회기 중 6월 19일 위원회를 열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 댐특위는 지난 2007년 2월 28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 등 댐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 동안 세 차례의 회의와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 도민, 연구원 등으로부터 댐관련 현황,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두 곳의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요구사항들을 전달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첫째, 댐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해 출연금 비율을 현행 발전 판매수입

금 6%이내와 생활·공업용수판매금액의 20%이내를 각각 20%이내, 30%이내로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3도(충북, 강원, 경북)에서 댐 주변 지역의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과 지원금 확대를 위한 관련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연구 검토 하고 지원 하였다.

셋째,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정부기관에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방문과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댐건설 장기계획 변경 설명회에 참석하여 댐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도민과 함께 하였다.

넷째,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각종 규제완화 등 현행 지원시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댐 건설로 인한 피해 규모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 법 · 제도 개선 선행돼야



이영복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 · 퇴근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럽에서도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전거 타기 운동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더 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여러 면에서 장점

이 있다.

먼저, 시간에 쫓기는 샐러리맨들이 자전거로 출 · 퇴근을 하면 바쁜 일상에서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운동해야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다.

또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협소한 도심의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공기의 오염을 막을 수 있어 좋다.

그리고 전 세계인의 관심사인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 타기 운동을 교통수단으로 전개하기에는 사고와 안전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 도로의 절대부족과 관련법규 · 제도 등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자칫 큰 모험이 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하면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로 인하여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처벌은 자동차 수준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자전거가 놀이기구가 아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임을 꼭 알아 두어야 할 것 같다.

이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와 다르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이는 보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대 차 사고로 처리된다.

둘째, 차선이 구획된 도로에서 종종 역주행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있는데 이는 역주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100%이다. 즉 도로교통법상 통상 차도를 운행하는 모든 차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좌측으로 운행하거나 역주행한 경우 이를 통행구분위반이라 하여 중대 과실로 처리되어 역주행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공원이나 도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하면 현행 법률상 인라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으로 보행자는 아니지만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개념으로 보아 손해배상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넷째, 도심의 교통상황이 복잡하고 위험하여 도로로 운행하지 않고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인도로 통행하다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과실조항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며, 종합보험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 이용자의 대다수가 주로 학생과 직장인들인데 그들에게 사고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방향설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에너지 절감 및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폭 넓게 전개되고 있는 자전거 타기 운동이 자칫 도로의 흉기로 전락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속히 현실에 맞게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전거 도로의 확충이 필요하다.



웰빙휴양 도내 시원한물길을 찾아서

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탄금대



탄금대는 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곳이며, 임진왜란때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싸우던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우륵이 가야금에서 신라로 귀화하여 충주에 머물게 되었는데, 탄금대에서 가야금을 타면 그 오묘한 소리가

강을 따라 퍼졌고, 그 소리에 끌린 사람들로 강변에 많은 마을이 생겼다고 한다.

탄금대에는 신립장군전적비와 '감자꽃'의 시인 권태응의 문학비도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대명사, 단양팔경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꼽는 대명사인 8경의 원조, 단양팔경은 단양을 가로질러 흐르는 남한강 상류 인근에 위치한다. 세봉우리 도담삼봉, 석문, 구담봉, 옥순봉,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사인암 등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절경을 감상해보자.

문의 단양관광안내소 (043) 422-1146

청풍호반의 즐길 거리



시원하게 하늘로 솟아 치는 고사분수의 장관과 관광 유람선을 타고 산과 호수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청풍랜드에서는 청풍호반을 바라보며 떨어지는 스릴 만점의 번지점프와 인공암벽타기 등

을 즐길 수 있고, 청풍호반에는 KBS 대하사극 '태조 왕건'의 촬영을 위해 후삼국 시대의 개성 벽란도 포구가 재현되어 있다.

문의 관리사무소 (043) 647-7003

남한강 래프팅



영월에서 흘러내리는 남한강 물줄기 따라 즐기는 래프팅은 여름철 대표적인 레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영춘 북벽에서 도담삼봉까지 다양한 구간에서 래프팅이 이루어진다.

문의 단양레저 (043)423-5600, 천지연레저 (043)423-5566

미동산, 천만산 산악자전거



청원 미동산 자락의 MTB코스는 초보자용, 전문가용, 다운힐 코스가 있어 공인경기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영동의 천만산 코스도 초, 중, 상급자용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문의 미동산 (043) 220-5581 / 천만산 (043) 742-2101

물한계곡



물이 맑고 차디 찬다는 뜻의 물한계곡은 삼도봉과 민주지산 등의 고산에 둘러싸여 형성된 20여km의 깊은 계곡이다. 때 묻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최적의 피서지이다.

난계박연과 옥계폭포

영동군의 옥계폭포는 낙차가 크고 웅장하여 충청권 제일의 폭포로 꼽힌다. 박연이 폭포에서 대금을 불었다고 하여 박연폭포라고도 불리며,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이곳을 찾아 아름다운 경관을 시로 읊었다. 인근에 박연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난계사와 난계국악박물관 등도 함께 둘러볼 만하다.



2008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도민교육안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는 우리 도민을 위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3분기 교육과정을 안내하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교육신청을 하시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3/4분기)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일수	기수(기)	인원(명)	비고
바른문화가 아름답다	새마을지도자반	신규 임명자·교육수로 후 3년 경과자	7. 17 7. 18	1일	2	150	
	바르게살기위원반	읍·면·동 바르게살기위원	7. 24 7. 25	1일	2	150	
	가족사랑반	행복한 가정을 희망하는 부부	8. 26~27	2일	1	28	합숙
	자원봉사리더반	자원봉사단체 임원·회원	9. 18 9. 19	1일	2	190	
	친환경쌀전업농반	쌀 전업농민, 희망농업인	7. 1~2	2일	1	80	합숙
영농기술	수출농업반	수출작목 반원, 단체 등	7. 8~10	3일	1	40	합숙
	농산물전자상거래반	전자상거래실천 농업인	7.15~16	2일	1	40	합숙
	한우고급육반	한우사육 및 희망농업인	9. 3~4	2일	1	40	합숙
농기계 훈련	콤바인·트랙터반	콤바인·트랙터보유농업인	9.24~25	2일	1	30	합숙

☑ 교육안내 및 상담

- 도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충북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11)
- 도민행복교육: (043) 220-5282~5285
- 영농기술·농기계훈련: (043) 220-5292~5297
- 홈페이지: <http://loti.cb21.net> • FAX: (043) 220-5289

☑ 교육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시·군청(또는 읍·면·동사무소)으로 신청 → 교육신청자명단(해당 시·군취합) →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로 통보 → 입교확정



※ 대한민국 정책포털 발체 (www.Korea.kr)

주요처리의안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경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 2008. 6. 11 현재 미분양 주택을 2009. 6. 30까지 취득 또는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
- 2006.9.1 지방세법 개정(제273조의2 신설) 취·등록세를 각각 50%씩 경감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50% 경감. 즉 현재 세율 대비 50%, 본래 세율 대비 75%가 경감이 되는 것임.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민선4기 후반기 도정 역점시책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안전부의 조직 개편지침을 반영한 유사기능의

통·폐합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새정부의 대국대과제원칙에 따라 한 시기구인 생명산업분부를 폐지하여 9개 실·국·본부로 조직을 축소하면서 탑재는 폐지(2개팀 유지)

[수정내용]

- 조직체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탑재 전면 폐지
- 담당관·과장·팀장 ⇒ 담당관·과장
- 과·담당관·팀의 설치 ⇒ 과·담당관의 설치
- 부서의 기능이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서명칭은 현재명칭으로 유지(안 제25조 및 제7절)
- 북부농업연구소 ⇒ 마늘연구소
- 충청북도내수면사업소 ⇒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2,685명 → 2,668명 (Δ 17)
- 집행기관의 정원 : 1,494명 → 1,426명 (Δ 68)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077명 → 1,130명 (+53)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4명 → 42명 (Δ 2)
-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 : Δ17명 일반직(Δ48), 별정직(Δ1), 연구직(Δ6), 지도직(Δ1), 소방직(+53), 교원(Δ2), 기능직(Δ12)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소관업무가 일부 나누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의정활동이 지남하고 집행부와 업무 접근이 용이치 않아 상임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의 재조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를 건설문화위원회로 변경
-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소방본부를 행

정자치위원회로 변경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수정내용]

-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소방위원회
-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폐지사항 반영
- 시행일 조정
- 공포한 날로부터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 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자연학습원 이용과 관련한 현실에 맞는 시설사용료 및 연수생의 수련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설사용·연수신청서', '시설사용·연수결정통지서' 서식을 조례에 명시
-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또는 연수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 매향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원안가결

의원동정



◀ **연만홀 의원**
(중평 제2선거구)

6월 14일~15일 증평군 남하리 둔덕마을 일원에서 열린 장뜰 들노래 축제에 참석, 기념사 및 의견수렴



◀ **최광욱 의원**
(비례대표 · 한나라당)

7월 9일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원과 함께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견학 및 참가자 격려



◀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6월 18일 옥천군 옥천군청에서 열린 남부권균형발전협의회에 참석, 발전방안 협의 및 관계자 격려



◀ **김화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6월 20일 음성군 음성읍 일원에서 열린 제3회 충북 어르신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참가자 및 관계자 격려



◀ **이중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6월 13일 인천광역시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 현안사항 협의



◀ **최미애 의원**
(비례대표 · 통합민주당)

7월 9일 여성정치세력 연대 교육장에서 열린 여성자치학교에서 생활정치 현실과 과제에 대하여 강의



◀ **이대원 의원**
(청주 제2선거구)

6월 18일 옥거리시장에서 열린 청주시 재래시장상품권 판매 100억 돌파 기념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6월 5일 괴산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괴산절임배추 생산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자 격려



◀ **조종애 의원**
(영동 제2선거구)

6월 24일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에서 열린 6.25 전쟁 참전전몰유사 추모제에 참석, 기념사 및 의견수렴



◀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6월 24일 옥천군 지역 의용소방대장 월례회에 참석, 여론수렴 ·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자 격려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6월 27일 보은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보은군 의용소방대 한마음경연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최재욱 의원**
(중평 제1선거구)

6월 16일~25일 미국에서 열린 BIO KOREA 홍보 및 BIO USA 참석, 상호 협력방안 협의 및 한국기업 격려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6월 11일~15일 금강읍 응천둔지에서 열린 제10회 금강유민의날 및 제20회 읍민화합체육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6월 25일 진천군민회관에서 열린 제58주년 6.25행사 및 자유수호를 위한 진천군민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7월 2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토론 및 관계자 격려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6월 25일 고송철도 오송역 예정지에서 열린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기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강태원 의원**
(비례대표 · 한나라당)

5월 28일~6월 20일 충청북도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재정의 적정성 · 건전성 평가 및 관계자 격려



◀ **심흥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6월 27일 충북 택견시범단과 중국 산동성 일조시에서 열리는 한 · 중 · 일 요트대회 개막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민경환 의원**
(제천 제2선거구)

6월 28일 제천시 청풍레이크호텔에서 열린 제3740지구 국제로타리 총재 이 · 취임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6월 24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한 · 중 · 일 관광장관 회의에 참석, 의견청취 및 관계자 격려



◀ **김항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6월 15일 갈물면 소재 충북중심공원에서 열린 이승만 ·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비 제막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범윤 의원**
(단양 제2선거구)

6월 7일 단양군 대포읍과 영춘면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자 격려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6월 9일~10일 새마을중앙연구소에서 열린 새마을 전국회장단 교육에 참석하여 연수교육 참여



◀ **이언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6월 23일 충주시 노은면 자치센터에서 열린 노은면 이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 지역현안사업 토론 및 관계자 격려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6월 18일 옥거리시장에서 열린 청주시 재래시장상품권 판매 100억 돌파 기념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임 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6월 21일 영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김현호배 동아리 축구대회 개막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6월 27일 청원군 옥산면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효부마을 준공식 행사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김병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6월 16일~25일 미국에서 열린 BIO KOREA 홍보 및 BIO USA 참석, 상호 협력방안 협의 및 한국기업 격려



◀ **김광수 의원**
(청주 제1선거구)

6월 23일~7월 6일까지 14일간 가족 전염병 예방법과 관련하여 서명운동 주관 및 참가자 격려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6월 12일~14일 보은군 일원에서 열린 제47회 도민체육대회에 참석, 체육대회를 주관하고 임원 및 선수단 격려



자전거 타기 활성화 법 · 제도 개선 선행돼야



이영복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럽에서도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전거 타기 운동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에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더 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

먼저, 시간에 쫓기는 샐러리맨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 바쁜 일상에서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운동해야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다.

또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협소한 도심의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공기의 오염을 막을 수 있어 좋다.

그리고 전 세계인의 관심사인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 타기 운동을 교통수단으로 전개하기에는 사고와 안전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 도로의 절대부족과 관련법규·제도 등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자칫 큰 모험이 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하면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로 인하여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처벌은 자동차 수준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자전거가 놀이기구가 아닌 사람의 생

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임을 꼭 알아 두어야 할 것 같다.

이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와 다름없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이는 보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대 차 사고로 처리된다.

둘째, 차선이 구분된 도로에서 종종 역주행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있는데 이는 역주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100%이다. 즉 도로교통법상 통상 차도를 운행하는 모든 차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좌측으로 운행하거나 역주행한 경우 이를 통행구분위반이라 하여 중대 과실로 처리되어 역주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공원이나 도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하면 현행 법률상 인라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

황으로 보행자는 아니지만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개념으로 보아 손해배상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넷째, 도심의 교통상황이 복잡하고 위험하여 도로로 운행하지 않고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인도로 통행하다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과실조항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며, 종합보험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 이용자의 대다수가 주로 학생과 직장인들인데 그들에게 사고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방향설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에너지 절감 및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폭 넓게 전개되고 있는 자전거 타기 운동이 자칫 도로의 흉기로 전락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속히 현실에 맞게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전거 도로의 확충이 필요하다.

150만 도민 모두에게 충청북도의회는 열려있습니다.

☞ 민원안내

| 민원안내 |

- 진정이나 일반민원 제출시에는 별도의 의원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전달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 후 제출

☞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 방청인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 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민원제출 방법 |

- 우편민원 :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로 158(문화동) 충청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민원 : <http://assem.cb21.net> 의 「도민발언대」에 글쓰기
- 전화민원 : 043-220-5151
- 팩스민원 : 043-220-5159

| 방청권 신청 |

- 총무담당관실 전화 : 043-220-5111

어린이의회교실 개최



▲ 6월 24일 진천 상산초등학교, 증평초등학교 5~6학년 70여명이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의정활동을 체험하고 있다.